< 2014년 2월 2일 주일 참고 기도문 >

사랑하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보고 들었으면 분별하고 분석하는 뇌를 100% 사용하고 가동시켜 전문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지혜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한 수고의 대가로 성공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과 구원자 앞에 큰 영광 돌려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영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뇌를 발달시켜 오직 성자주님 사랑에 집중하고 뜨겁게 실천함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께서는 인간 수준에서의 판단은 온전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세상 재판관이 판단을 하더라도 인간 수준에서 판단하면, 어느 한 쪽이 억울하게 결정되는 일이 많은 것이 불완전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판단을 했어도 어느 한 쪽이 억울하게 결정이 되면 다시 공의롭게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여 주시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시대 축복과 혜택을 주신 만큼 날마다 더 큰 사랑과 뜨거운 감격감사의 제단으로 영광돌려 드리오니 저희들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주시고, 큰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분별의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받아 올바른 신앙의 삶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큰 조건을 세우시며, 목숨을 주고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과 휴거의 축복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말없이 자식을 키우듯이 하나님의 애인으로 저희들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오직 사랑 때문이듯이, 선생님의 숭고한 헌신과 정성어린 눈물의 휴거역사 역시 오직 사랑 때문임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가슴으로 깊이, 영혼으로 깊이 제대로 더 온전히 깨달아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할 시대가 왔으니 만큼 이 모든 황금의 시대를 감당하며,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이며,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히 알아 우리의 머릿 속에 마음 속에 개인적 차원으로만 그 분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그 크신 사명과 뜻을 깨달아 그 분께서 그 귀하신 사명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증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원합니다.

불을 삼킨 자는 그 입에서 불이 나올 수 밖에 없듯이, 선생님이라는 불을 불로 삼키지 못 하고 자기입에 맞게 희석시켜 용광로 같은 불을 삼켜 놓고도 호롱불 만한 역사 밖에 펴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진정으로 회개드립니다. 이제는 그 분을 제대로 깨닫고, 차원을 높여 깨달아 그 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도들이 되게 하시며,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분을 사고, 그 분을 더 높이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증거해 드리도록 진정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섭리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인류의 구원과 생명을 책임지시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조건을 세워 나가시는 선생님의 귀하신 삶 가운데 아름답고, 신비롭고, 웅장한 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산더미 만큼 수없이 많은 하늘의 일더미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시지 않도록 선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께서 매 순간마다 걸어가시는 역사의 노정이 기쁘고 희망찬 혼인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깊은 사랑의 기도로 정성을 쌓아드리게 하시며, 선생님의 심정과 능력으로 불같이 외치고 달리시는 두 증인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사랑함으로 수고하고 땀흘리며 애쓰는 섭리사 모든 형제들 가운데도 크나큰 사랑과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선생님께서 목숨을 내건 사랑의 조건을 세워주신 만큼 모두 다 완성된 300선 휴거에 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신 근본자 성삼위 하나님께 감격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성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